

		보 도 자 료		JEONJU IFF
배포일	2026. 5. 1	보도 요청일	2026. 5. 1	
담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1899-5433 (홍보미디어팀: 4번) publicity@jeonjufest.kr	

전주국제영화제-예수병원 손 맞잡는다 3개년 후원 협약 체결

-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상 후원까지 협력 확대
-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특별상 상금 지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예수병원과 4월 28일(화) 예수병원에서 3개년 후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신충식 예수병원장,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전주국제영화제와 예수병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협약을 이어간다. 예수병원은 2025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영화제 기간 전담 의료진을 파견하고 구급차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꾸준히 뒷받침해 왔다.

이번 3개년 후원 협약을 통해 예수병원은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특별상 시상을 후원한다. 해당 상은 한

국단편경쟁 심사위원단이 상영작 중 1편을 선정해 수상자에게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협약은 전주 기반 의료 기업이 전주국제영화제 시상 후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주를 기반으로 한 예수병원과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이 영화제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한국의 단편영화 창작 환경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이 영화 창작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9일(수) 개막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8일(금)까지 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